문재인·안철수 본격 행보에 잠룡들 일제히 수면위로

빨라진 대선시계…野 대권주자 기지개

손학규 7월쯤 정계복귀 할 듯
박원순 원로들 만나 외연 확대
안희정 "시대의 부름에 준비"
천정배·정동영 도전 여부 주목

차기 대통령선거가 약 1년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양강 구도'속에 새누리당의 내분으로 정국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손학규 전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잠룡'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영 당선인 등도 호남 주자로서 대선 도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0대 총선에 불출마한 문 전 대표는 곧 '원외' 인사가 되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36주년을 맞아 지난 16~18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은 데 이어 20일에는 노동 관련 포럼에도 참석했다. 문 전 대표는 당분간 전국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두루 만나는 한편 해외 방문을 통해 보폭을 넓혀가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총선 광주 지원 유세 과정에서 "호남의 지지가 없다면 대선 불출마 등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매듭을 짓지 못해 부담이 되고 있다.

4·13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당 체제 정비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253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인선 작업을 통해 전국 정당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새누리당 이탈 인사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외연 확대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구 활동에도 상당시간을 할애하면서 본격적인 대권 도전에 앞서 지역구를 다지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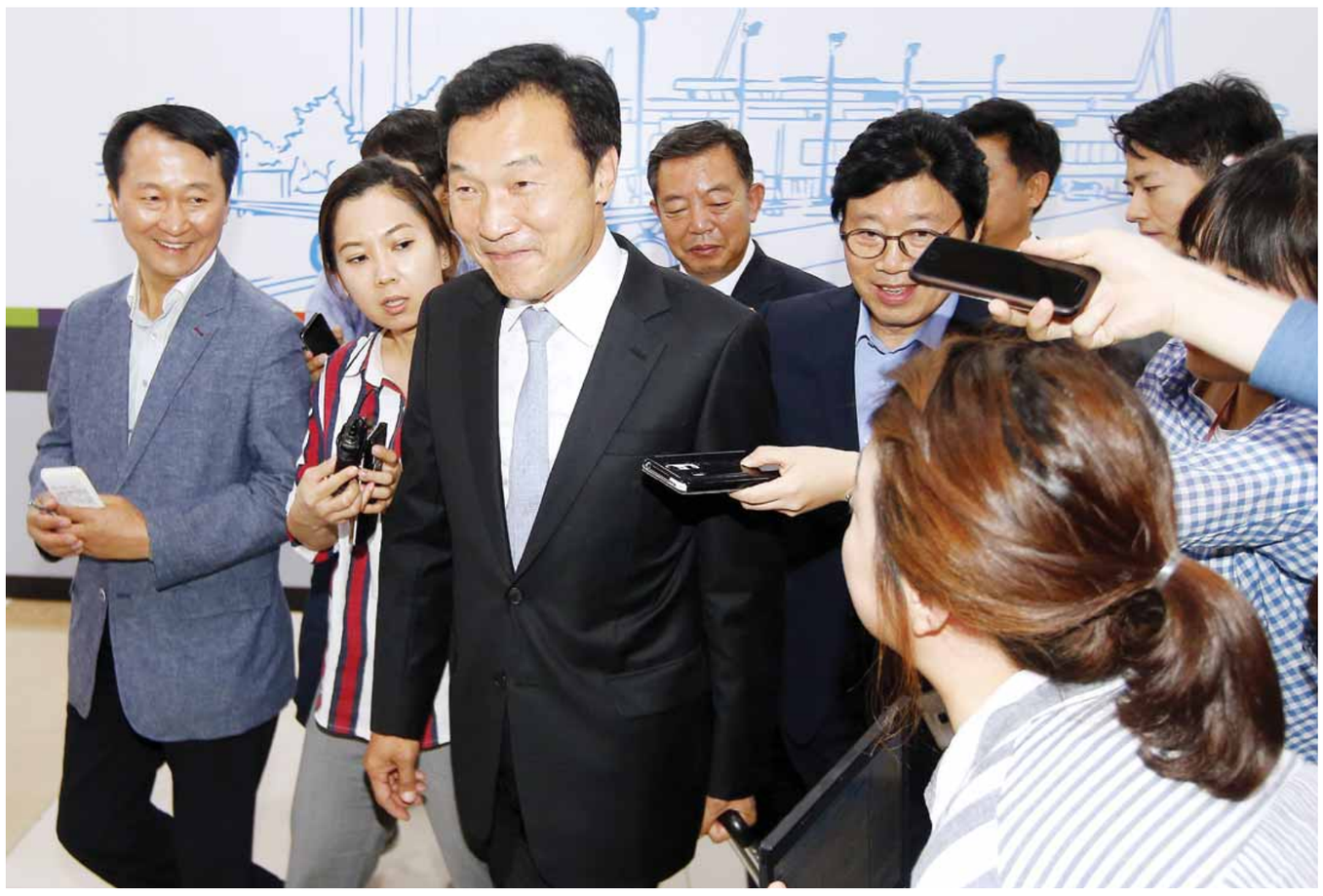
손학규 전 의원은 지난 18일 광주에서 "새판을 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일본을 방문해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정계 복귀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개헌 논의'에도 불을 지핀 그의 복귀 시기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창립 10주년인 7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 시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 미리 광주를 2박3일 일정으로 찾아 전남대 강연에서 "뒤로 숨지 않겠다.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고 말해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최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각계각층의 원로들을 만나며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는 등 외연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다.

안희정 지사는 여권 내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충청 대망론'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 야권의 유일한 충청권 잠룡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그는 "시대의 요구가 있을 때 준비가 안 된 건 군대조직으로 치면 장수의 문제이고,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불모지인 대구에서 31년 만에 '정통 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다크호스'로 부상한 김부겸 당선인도 당권보다는 대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 주자들은 아직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 만이 '호남 연정론'을 고리로 대권 도전 의사를 나타낸 상황이다. 천정배 대표와 정동영 당선인은 몸을 낮추고 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정치권 새 그릇 만들기 새판짜야"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22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손 전 고문은 "새 그릇 만들기 위한 정치권 각성·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국회 부의장 박주선 의원 유력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국민의당 몫의 국회 부의장 자리에 지역 정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당직 개편에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을 안철수 대표 측에서 차지했다는 점에서 국회 부의장은 호남 출신이 맡는 것이 합당하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국회 관행과 정치적 중량감 등을 고려할 때 박주선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맡는 것이 순리라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3당 체제의 20대 국회를 고려할 때, 정치력을 갖춘 국민의당 중진 의원이 부의장을 맡아 국회의장과의 협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박 의원의 국회부의장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박주선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맡게 된다면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가운데 지난 15대 국회 하반기(1998년 5월~2000년 5월)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봉호 의원 이후, 16년 만이다. 그 이전에는 14대 허경만, 12대 김녹영, 11대 고재청 의원 등이 국회부의장을 지낸 바 있다.

박 의원도 광주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의 정치력을 바탕으로 3당 체제에서 협치의 정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호남 정치의 도약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국회 부의장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박주선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당 내외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상호 "예결·운영·법사위원장 주면 국회의장 양보할 수 있다"
박지원 "법사위원장, 국회의장과 관계없이 野가 맡는게 바람직"

국회 상임위원장 물밑경쟁…더민주·새누리·국민의당 8:8:2 유력

여야 3당의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에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어 상임위원장 경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은 통상 그동안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의원들 중 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같은 선수라면 나이나 경력을 안배하지만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할 때도 있다.

일단 상임위 숫자를 현행(18개)대로 유지하자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8개,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아직 어느 당이 어떤 상임위를 가져갈지 미지수지만 국회의장직을 제1당인 더민주에서 가져간다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 경우 검사 출신의 권성동 의원과 판사 출신인 여상규·홍일표 의원이 법사위원장 후보군 물망에 오른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몫이던 안전행정위원장 자리는 3선에 오른 유재중·이명수·이학재 의원과 박순자 3선 당선인이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이혜훈 당선인은 17·18대 국회 내내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내세워 기재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다.

정무위원장 후보로는 새누리당에서 이진복·이종구·김용태 3선 당선인 등이 꼽힌다. 더민주도 정무위를 가져오겠다고 벼르는 상황인지라 3선에 성공한 김현미 의원도 후보로 거론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는 새누리당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더민주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후보로 꼽힌다.

더민주 몫이던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는 4선 당선인인 조정식 의원과 3선 당선인인 백재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보건복지위원장 후보군에는 4선에 오른 양승조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당에는 상임위원장 경력이 없는 3선 당선인이 유성엽·장병완 의원 둘 뿐이다. 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장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각각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 반대론'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궤도를 수정,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국회의장과 관계없이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만약 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을 주시겠다면 국회의장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